

더 던 매거진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리는 전령



새벽 잡지

2026년 9월

목차

특집 기사.....	2
------------	---

하나님의 언약에 드러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2

성경 연구.....	19
------------	----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다..... 19

요단강에서 가져온 열두 돌..... 23

해가 멈춘 사건 26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 주다 30

기독교인의 삶과 교리	34
-------------------	----

“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34

성경을 함께 읽어 보세요!

언약을 통해 드러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호와와 그의 비밀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의 언약을 나타내시리라.”*

시편 25:14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가져다줄 인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이 계획이 완성될 때 인류는 하나님께로 회복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리 정해진 신조를 입증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연구한다면, 그 페이지 속에 숨겨진 진리의 보석들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열린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에 다가간다면, 우리는 그 페이지 속에서 인류의 운명에 대한 신성한 계획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들은 시대를 관통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대한 완전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언약들은 잃어버린 낙원에서 되찾은 낙원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의 전 과정을

아우릅니다. 이 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몇 가지 언약에 대해 다룹니다. 이러한 언약들을 이해하는 것은 세상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신성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를 깨닫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그분의 위엄 있는 행보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그분의 왕국에 대한 소망은 더욱 크고 실감 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나 서약의 형태를 띠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과 개인, 민족, 혹은 전 인류 사이의 양자 간 합의나 계약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 일부는 신성하게 제정된 규례로, 신실함에 대한 상과 불신실함에 대한 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 하나님께서 인간 피조물과 맺으신 언약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에덴의 언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첫 번째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맺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5-1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생사는 이 언약을 지키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이 계약을 어겼습니다(창세기 3:6).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잃었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은혜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30:5). 많은 이들이 타고난 불멸이라는 그릇된 교리를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사람은 생명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4). 이를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겉으로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영혼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살아 있을 것이다”가 될 것입니다.

사탄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살인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는 항상 진리를 미워해 왔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의 본성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44). 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불순종의 결과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창세기 2:17). 우리 주변의 모든 증거를 볼 때,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을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확실히 아담은 죽었고,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5:5; 고린도전서 15:22).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생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진실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인지 사탄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담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은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밖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느니라.”(로마서 5:12)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탄에게 넘겨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서 처음으로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이는 우리 첫 조상들에게, 언젠가 미래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노아와의 언약

에덴에서 쫓겨난 후 인간과 맺은 다음 언약은 노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언약은 “하늘은 여호와와의 것이요, 땅은 그분이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다”(시편 115:16)는 큰 확신을 줍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 9장 11-17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다시는 홍수가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홍수가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모든 생물, 그리고 훗세대에 이르기까지 내 언약의 표징을 주리라.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으니, 이것이 너와 온 땅과의 내 언약의 표징이다. 내가 구름을 땅 위에 보내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날 것이며, 내가 너와 모든 생물과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다시는 홍수가 모든 생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볼 때면, 하나님과 땅 위의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 무지개는 내가 땅 위의 모든 생물과 맺는 언약의 표징이다.”

이 기록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가 언약이 지켜질 것이며, 땅이 다시는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징임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하는 표징으로 선택되었을까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대홍수 이전에는 땅에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과 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으나...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온 땅의 표면을 적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다가올 대홍수를 대비해 방주를 지을 때 조롱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사람들이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홍수 이전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유는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10절에 나오는 한 창조 기록은 “궁창”이 두 개의 거대한 물체를 분리했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궁창을 하늘, 즉 하늘의 광활한 공간이라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은 땅 위에 있었으며, 마른 땅이 드러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다’라고 불리는 거대한 물 덩어리로 분리되었습니다. 창공 위의 물은 대홍수 이전에 지구를 둘러싼 고리 모양의 수성 물질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행성 주위에 고리가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토성에는 주로 얼음 형태의 물로 이루어진 고리가 있습니다. 다른 행성들은 물 이외의 물질로 이루어진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홍수 이전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고리는, 지구가 인간의 거주를 위해 준비되던 시기에 행성의 강렬한 열기가 증기의 형태로 막대한 양의 수분을 방출했을 때 생성되었습니다. 이 수분은 베일처럼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으며, 지구상에 온실과 같은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 지구 창조 이론은 많은 과학자들과 성경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마스토돈과 다른 온혈 동물들이 오늘날의 북극권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의아해 해 왔다. 대홍수 이전에 지구에 존재했던 온실 효과 덕분에 지구의 모든 지역이 똑같이 거주 가능한 환경이 되었다.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에는 지구 상공의 고리가 깨진 기록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노아가 여섯백

살이 되었을 때, 둘째 달 열일곱째 날, 그 날에 큰
심연의 모든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더라.
비가 사십 일 사십 야 동안 땅 위에 내렸더라.”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창공 위의 물이 지구의
중력에 끌려 들어와 폭우의 형태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특히 극지방에서 나타나던 온실 효과는
갑작스럽게 끝났고, 빙하가 형성되었습니다.
대홍수는 노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마스토돈과 다른 동물들은 위와 장
속에 소화되지 않은 먹이를 품은 채 간혀 버렸습니다.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증거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선택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창공
위에 물이 있었다면, 지구는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지개가 생기려면 태양의
직사광선이 필요합니다. 무지개는 수분이 가득한
공기에 비치는 태양의 직사광선이 반사되고
굴절되어 빛을 다양한 프리즘 색상으로 분산시키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지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지구 위에 더 이상 물의 고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이는 전 지구를 뒤덮는
대홍수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선택하신 이유는, 것처럼 거대한 규모의 대홍수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다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땅 위의 모든 가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언약은 “너[네 후손]를 통해 땅 위의 모든 가문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로 간단히 요약됩니다(창세기 12:3; 22:18). 이 언약의 여러 세부 사항들은 다른 여러 차례에 걸쳐 아브라함에게 반복되어 전해졌으며, 그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전해졌습니다(창세기 26:4; 28:14). 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두 가지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생길 것이며, 둘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지 4세기 조금 넘게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열두 아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를 ‘율법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시내 산에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규례를 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규례 안에서 살리라”는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한목소리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레위기 18:5; 로마서 10:5; 출애굽기 19:8). 이스라엘 자손들은 율법 언약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 언약을 통해 영생의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으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이 언약의 조건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갈라디아서 4:21-28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통해 이 두 언약—하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을 비유로 보여주셨습니다. “말해 보라,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아, 너희는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인의 아내에게서 난 자이다.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요, 자유인의 아내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태어난 자니라. 이 모든 것은 비유니, 이 두 언약은 곧 시나이 산에서 나온 것으로, 종살이를 낳는 것이요,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 산이요, 현재의 예루살렘 에 해당하며, 그 자녀들과 함께 종살이를 하고 있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아, 기뻐하라. 해산하지 않는 여인아, 소리 높여 외쳐라.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버림받은 여인이 자녀가 훨씬 더 많으니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율법 언약은 왜 맺어졌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속박해 왔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유대인도 그것을 완벽하게 지킨 적이 없다. 그것은 그들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 율법 언약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맺어졌으나, 가장 주된 이유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율법 언약은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유대인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은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불의 가운데서 지어졌으며” 죄 가운데서 잉태되었기 때문에(시편 51:5), 아담의 자손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율법은, 정작 그들에게는 죽음을 가져다주는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율법은 그들을 죄 아래 정죄했습니다(로마서 7:10; 갈라디아서 3:22). 율법은 그들에게 자신이 불완전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율법 언약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불완전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느니라.” (로마서 5:12).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율법 언약은 인류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무해하시며,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과 분리되신” 분이셨습니다(히브리서 7:26).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그분의 완전함을 보여주었으며, 따라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위한 랜섬으로 죽으실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잃어버린 완전한 생명을 대신하여 또 다른 완전한 생명이 바쳐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애굽기 21:23). 아담은 죄로 인해 완전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가 죽자 온 인류가 그 안에서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죄인인 아담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인류가 그분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도행전 17:31).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며,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린 인간의 완전함으로 회복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22). 율법 언약은 구세주와 구속주가 필요함을 보여주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온 인류는 다시금 생명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특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씨앗의 성장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이삭이나 야곱 중 누구도 온 인류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씨’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신약성경은 그 씨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줍니다.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씨들’이라고 하여 여러 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을 가리키며 ‘네 씨’라고 했는데, 이 ‘씨’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16).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에 따라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으며, 약속된 축복의 성취를 더 가까이 가져오셨습니다. “ ” (히브리서 2:9). 하나님의 계획은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의, 지혜, 사랑, 그리고 능력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인류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조화롭게 성취하는 데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오늘 다윗의 성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자 천군천사가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이, 땅 위에는 평화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누가복음 2:10, 11, 14).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신 지 거의 2천 년이 지났으나, 약속된 축복은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교회를 세상을 축복할 “씨”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삼는 언약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이 위대한 진리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전망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을 설레게 해야 합니다.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갈라디아서 3:28, 29

오순절 이후 현재까지의 이 시대의 사역은 세상의 회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자들을 포함하는 아브라함의 “씨”가 성장해 온 시기였습니다.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우리를 “어둠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분의 “찬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9

새 언약

때가 되면 신실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살며 다스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4, 6).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땅의 모든 가문을 축복하는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31-34와 히브리서 8:8-12은 이 언약과 땅의 모든 가문에 주어질 축복된 결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때에 사람이 더 이상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인류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약속은 성취될 것이며, 천년 왕국 기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모든 원수들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 원수인 ‘죽음’도 멸망당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25, 26). 고의로 불순종하는 자들만이 죽음으로 끊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3:23

지상의 모든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은 경배하며 무릎을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11).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회복시키실 계획, 나아가 새 언약 아래 땅의 모든 가문을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기뻐합니다! 이 계획은 사도가 “때가 차면 이루어질 경륜”이라고 묘사한 시점에 절정에 달할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10

9월 6일 수업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너와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려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1:2

선정된 성경 구절
여호수아 1:1-11

지도자의 바통이 이어졌다. 이스라엘이 그 동안 알고 지낸 동족 중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다. 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막대한 권력 공백이 생길 수도 있었다. 임박한 죽음을 충분히 예감한 모세는 선제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신명기 34:9). 여호수아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어 막막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조언은 여호수아의 우려를 헤아린 듯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전하신 취임 메시지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제가 세 번이나 강조되어 반복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이 백성을 이끌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온 땅을 차지하게 할 자이니라. 강하고 매우 담대하라.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말을 삼가 지켜 행하라. 그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끊임없이 연구하라.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 그래야만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고 성공하리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라.” 여호수아 1:6-9

돌이켜 보면, 모세 자신도 지도자의 역할을 주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겠습니까?” (출애굽기 3:11).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오 주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음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을 더듬고, 말이 꼬여 버립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이제 가라! 네가 말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네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가르쳐 주리라.” 그러나 모세가 다시 간청했다. “주님,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하셨다. “좋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네 형제, 레위 사람 아론은 어떻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한다는 것을 안다. ... 그에게 가서, 네 말을 그의 입에 넣어 주라. 너희 둘이 말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 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리라. 아론은 백성 앞에서 네 대변자가 될 것이며, 그가 네 대변자가 될 때, 너는 그를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려 주어야 한다.” 출애굽기 4:10-16

주님께서서는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여호수아와 함께하시며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으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19).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사역을 제대로 섬기기에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약함이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확신을 떠올립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나는 기꺼이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9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분의 대의를 위한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움츠러들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요단강에서 가져온 열두 돌

**“백성 중에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여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기 요단 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 있던 곳에서 돌
열두 개를 가져가라. 너희는 그것을 너희와 함께
건너가서 오늘 밤 머무를 숙소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 4:2,3

선정된 성경 구절

여호수아 4:1-24

마침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설
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방랑을 견뎌낸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희망과 꿈이 깃든 전설의 땅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다리는
없었습니다. 그들을 실어 나를 나룻배도 없었지만,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마련된 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제사장들은 백성보다 2,000 규빗 앞서 가야 했다. “온 땅의 주님이신 여호와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의 물에 닿는 순간, 요단강의 물은 흐르는 것이 끊어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한 덩어리로 멈춰 설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장막에서 나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 궤를 메고 있는 자들이 요단에 이르자마자, 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자마자, ... 위에서 내려오던 물은 자레탄 곁에 있는 아담이라는 성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멈춰 한 덩어리로 솟아올랐고, 아라바 바다 곧 소금 바다 쪽으로 흘러내리던 물은 완전히 끊어졌다.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다. 여호와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요단 강 한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 온 민족이 요단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러했다.”

여호수아 3:13-17

이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힌 열두 사람이 강바닥에서 열두 개의 돌을 가져와 기념물로 삼았다. 그 돌들은 이스라엘이 처음

진을 친 곳에 놓였다. 여호수아는 직접 그 돌들을 가져다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발휘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표징이었다. (여호수아 4:4-9). 수 세기 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또한 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쉰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였다.” (사무엘상 7:12).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도우신 그 주목할 만한 사건들을 “에벤에셀”로 기념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혼란의 시기나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 버릴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의 도움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들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상기하기 위해 우리만의 기념비, 즉 “에베네저”를 세워 봅시다.

해가 멈춘 날

**“그 날 전에도 그 날 후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

여호수아 10:14

선정된 성경 구절

여호수아 10:1-15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이 놀라운 날은 오랫동안 많은 경이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새로운 동맹인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공격 측은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브온을 멸망시키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만약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과 연합하여 우리를 물리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계산은 어리석음과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버리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고 도와주소서.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들이 ... 우리를 대적하여 모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올라갔으니, 그와 함께한 모든 군사와 용맹한 전사들이 모두 함께했다.” (여호수아 10:6,7) 여호수아가 모은 군대는 막강했지만,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모리 사람들을 대적하신 여호와와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 누구도 네 앞에서 서지 못할 것이다. 이에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 행군하여 그들을 기습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패주시켜 기브온에서 대대적으로 학살하셨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던 중... 주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그들에게 내리셨고... 그들이 죽었다. 칼로 죽은 이스라엘 자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여호수아 10:8-11

앞서 읽은 내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 중

누구도 여호수아 앞에서 버티지 못하도록 마련해 두셨습니다.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아모리 군대를 패주시킨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아모리 사람들에게 큰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전투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전투는 대낮에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을 뒤덮은 어두운 폭풍 구름이 해와 떠오르는 달을 가렸는데, 바로 그 구름이 우박의 근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신 그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이르되, ‘해여,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이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에 해는 멈춰 섰고, 달도 멈춰 섰으니, 백성이 원수들에게 복수할 때까지 그러했다.’”(여호수아 10:12, 13). 우리는 여호수아가 해가 하늘에서 문자 그대로 멈추기를 요청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멈추다”라는 단어의 정의가 그 해답을 암시합니다. *스트롱 히브리어 사전*은 “멈추다”로 번역된 이 단어를

“침묵하다; ... 멈추다; 또한 소멸하다”는 의미로 정의합니다. 여호수아는 해가 하늘에 그대로 멈추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해가 침묵하거나 그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그는 아모리 적인들이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하늘에서 쏟아지는 우박 폭풍이 해를 가리는 현상이 계속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날은 햇빛이 비친 시간의 길이로 인해 놀라운 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핵심 구절에 명시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점에서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 주다

**“우리가 이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누구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하늘 위와 땅
아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11

선별된 성경 구절

여호수아 2:1-24; 6:17

라합에게서 우리는 흥미로우면서도 상반된 다양한 성격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녀로 묘사된 라합은 동시에 뛰어난 개인적 정직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약속을 지키는 여성이었으나, 동시에 기록된 역사상 가장 능숙한 거짓말쟁이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과 약속과는 무관한 외부인이었으나, 그럼에도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 소식을

통해 주님께 대해 들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부터 40년 전에 일어난 홍해 갈라짐은 분명히 그 땅의 백성들 사이에서 여전히 회자되고 있었다.

라합은 여리고의 상황을 정찰하러 파견된 정탐꾼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과, 여러분에 대한 공포가 우리에게 닥쳤으며,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여러분 때문에 겁에 질려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우리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의 물을 말리신 일과, 요단 강 건너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오그에게 너희가 행한 일, 곧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일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2:9, 10

라합의 말은 모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확증해 줍니다. “오늘부터 내가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게 너희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 주리니, 그들이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너희 때문에 떨며 괴로워할 것이다.” (신명기 2:25). 여리고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라합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유일한 참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있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떨지만,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뻐합니다. (야고보서 2:19). 라합은 자신의 믿음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였으므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31).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행실로 이어졌습니다. “창녀 라합도 사자들을 맞아들여 다른 길로 보내어 준 행실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야고보서 2:25

라합의 행실은 그녀의 믿음의 깊이를 증명했으며, 그 믿음이 행동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것은 전설이나 당시의 소문에 대한 일시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실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믿음은 너무나 진실하여, 라합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놀라운 역할을 맡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의 집안, 그리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살려 주었다. 그녀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겨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다.” (여호수아 6:25).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살몬은 라합을 통해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롯을 통해 오벧을 낳았으며, 오벧은 예세를 낳았고, 예세는 다윗 왕을 낳았다.” 마태복음 1:5,6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한 믿음의 행동이 풍성하고 강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씀도 그러하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시고 싹이 트게
하며 꽃을 피워, 씨 뿌리는 자에게는 씨를,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게 한 후에야 비로소 하늘로
돌아오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뜻한 바를 이루며
내가 보낸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이사야 55:10, 11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인해 저주받고 죽어가는 인류를 화해시키려는 신성한 계획을 드러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목적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이 말씀으로 선포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복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처음 접할 때 배우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는 우리에게 믿음의 견고한 기초를 제공하며, 복음 속에 제시된 소망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사랑의 뜻을 은혜로 기꺼이 이루시며, 이를 충분히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확신으로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수행해야 할 기능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또한 신성한 뜻에 따라 효과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다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히브리서 4:12).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또한 그분은 그 계획의 상당 부분을 성취하기 위해 말씀 자체를 사용하십니다. 이는 특히 그분께 전념한 백성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이 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더욱 그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신성한 말씀의 영향력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유업을 함께 누릴 자격이 있는 자”로 만들어질 것임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골로새서 1:12

우리 발의 등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발에 등불이요, 그의 길에 빛이라고 기록했습니다(시편 119:105). 또한 그는 “주의 말씀의 교훈은 빛을 주므로,

어리석은 자도 깨달을 수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시편 119:130). 우리 또한 이 깨달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둠에 휩싸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6). 바울은 이 빛이 복음을 통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고 말하며, 비록 우리가 여전히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앞길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빛은 지식과 이해의 상징이며,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해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좁은 길을 매일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말씀에 의해 인도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실천한다면, 그 지침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도 흠을 잡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야고보서 1:5).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부지런히 구한다면,

우리의 길은 “완전한 날이 올 때까지 점점 더 밝게
빛나는 빛”과 같을 것입니다. 잠언 4:18

우리는 말씀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양식과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인
우리 각자에게 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고린도후서 5:17). 우리가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또 그분의
능력의 권세 안에서 강해집니다.” (에베소서 6:10).
이러한 영적 양식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성숙의 온전한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4; 신명기 8:3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재림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이들에게 하신 약속 중 하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은 스스로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와서 그들을

섬기리라.” (누가복음 12:37).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해 우리가 누려온 진리의 잔치는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쾌함을 주는 물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물에 비유됩니다. 그것은 상쾌하고, 활력을 주며, 생명을 줍니다. 진리의 상쾌한 물이 없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메마르고 사막 같겠습니까? 우리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영적인 양식과 음료가 풍성히 공급될 것이라는 주님께서 주신 확신을 기뻐합니다. (마태복음 5:6).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자들이 “채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얼마나 상쾌하고 풍성하게 채워주는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정화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물로 비유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은 물로 씻음”을 받아 정화된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5:26).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이러한 기능은 이스라엘 성막을 둘러싼

뜰에 있던 물두멍의 물에 의해 예표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몸을 씻었으며, 장차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우리에게 말씀은 타락한 육신의 결점과 오점을 씻어내는 장소입니다. 베드로전서 2:9

보호의 갑옷

시편 기자는 “그의 진리가 네 방패와 방패가 되리라”고 기록했습니다. (시편 91:4).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입니다. (디모데후서 2:3).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12). 군인에게는 맞서 싸우는 적들이 있는데, 우리의 적은 세상과 육신, 그리고 마귀입니다. 이러한 적들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은 뚫을 수 없는 보호의 갑옷과 같습니다. 사탄과 그와 동맹을 맺은 보이지 않는 세력들은 특히 강력하며, 바울은 우리가 이들에 맞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11

바울은 이 갑옷의 각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그것이 어떻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지 설명합니다(에베소서 6:16). 그 중에는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에베소서 6:17). 이는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잘 나타냅니다.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를 떠나실 때 사탄이 공격해 왔을 때, 그분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분의 보호가 되었습니다. 유혹의 모든 불화살에 맞서 주님의 방어는 “기록되었으되”였습니다(마태복음 4:4, 7, 10).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적인 군사가 되려면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갑옷의 또 다른 부분은 “의의 흉갑”입니다(에베소서 6:14). 고대 갑옷의 흉갑은 심장과 다른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성경은 “네 마음을 온전히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4:23). 우리는 주님께서 타락한 육신의 어쩔 수 없는 불완전함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적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 우리를 낙담시키려 애씁니다. 그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별 소용이 없다고 믿게 만들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도 말씀은 우리에게 보호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섭리를 확신시켜 주시며,

우리의 의로운 지위, 즉 의롭다 하심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음을 알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1

그 결과, 대적이 낙담의 불화살을 쏘아대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이니라.” 로마서 8:33, 34

바울은 “믿음의 방패”를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끄기 위해 고안된 기독교 갑옷의 일부로 언급합니다(에베소서 6:16). 그것은 “한 번 성도들에게 전해진 믿음”입니다(유다서 1:3). 그러나 이 믿음에 대한 지식을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믿음에 대한 완전한 확신과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방패”라는 상징에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베드로후서 1:4)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완전한 확신은, 새 피조물인 우리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모든 시도에 맞서 견고한 힘의 보루가 되어 줍니다.

또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17). 이것이 바로 우리 갑옷의 공격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원수들과 싸우지만, 이것은 육적인 칼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중 어느 것도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요새를 무너뜨리고, ...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4,5

사탄의 불화살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유혹들입니다. 이러한 유혹들은 종종 매우 그럴듯해 보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명백한 뜻보다 항상 육신에 더 호소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받아들이고 그에 지배당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검”을 휘둘러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파괴한다면, 우리는 대적과의 모든 작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좁은 길 위에서의 우리의 걸음 또한 말씀으로 보호받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발이 “평화의 복음으로 신을 신은 것”이라고 말합니다(에베소서 6:15). 그리스도인의 길은 종종 험하고 어렵습니다. 대적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걸림돌을 놓아둡니다. 말씀은 또한 “사냥꾼의 올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91:3). 우리의 발을 보호하는 것은 “평화의 복음”으로 언급됩니다. 이 “ ”은 사탄의 공격 방법 중 하나가 우리를 육신의 다툼과, 우리를 반대할지도 모르는 사람들과의 논쟁 속으로 유인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행보는 육신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새 피조물에게는 올무이자 걸림돌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마태복음 5:9

바울은 우리가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고 말합니다(에베소서 6:14). 고대 시대에 허리띠의 기능은 오늘날의 벨트와 비슷했습니다. 이는 그것이 봉사의 적절한 상징임을 시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가진 보호적 특성은 우리가 이기심 없이, 곧 사랑으로 그것을 붙잡을 때 비로소 발휘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진리의 충실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유익을 오로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 누릴 수 없으며,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신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우리에게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게 되어, 조만간 우리는 원수들 앞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

주님께서는 서두의 본문에서 그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헛되이 그분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진리의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서 말씀을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구를 통해 그분의 백성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분은 고대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구약성경에 그분의 계획을 기록하게 하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사도들의 마음을 기적적으로 깨우쳐 주셔서, 그들의 설교와 저술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는 데 기여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기적적으로 영감을 받은 말씀의 종들 외에도, 주님께서 목회자와 교사, 전도자들을 세우셨다고

설명합니다(에베소서 4:11). 더 넓은 의미에서, 전념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그분의 진리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의 영”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여 이 사역을 위해 그들을 기름 부으시기 때문입니다(이사야 61:1; 누가복음 4:18; 요한일서 2:27). 그분의 말씀에 의해 제시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죄로 인해 저주받고 죽어가는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구속주이자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기록했으며, 이어서 이 위대한 사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절로 섬기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19, 20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님께서 그토록 연약하고 불완전한 종들을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은 거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헛되이 그분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그분이 보내신 곳에서 형통할 것이라고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놀랍도록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기뻐하지만, 주님의 권위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결과는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종종 아무런 결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격려를 위해 이 점 또한 설명해 주시며,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는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의 말씀은 주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이 설명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마태복음 13:3-8, 18-23). 이 비유에 나오는 씨앗은 “천국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그분의 왕국이 임하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영광스러운 완성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주님께 전념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네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네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똑같이 잘 될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전도서 11:6)

이 비유에서 뿌려진 씨앗 중 일부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고, 일부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일부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지고,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이 “열매”를 맺어 성숙에 이릅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겉보기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비유를 기억한다면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많은 노력이 겉보기에는 헛된 것처럼 보일 것임을 미리 아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종종 헛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그분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하는 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씀을 신실하게 사용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강해질 수 있도록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낌없이 주되 오히려 더 많이 얻고, 다른 사람은 부당하게 아끼다가 가난에 이른다.” (잠언 11:24).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진리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생명을 주는 능력이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더욱

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삼으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분의 말씀이 헛되이 그분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가 뿌리는 씨앗의 상당 부분은 길가에 떨어집니다. 즉,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함으로써 그 진리는 우리 삶 속에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시를 포함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다스릴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4

우리가 진리의 씨앗을 뿌릴 때, 일부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이 비유는 말씀을 기쁨으로 듣지만, 그 말씀을 옹호함으로써 초래되는 악의와 박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징함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진리로부터 기쁨을 얻으며, 이는 그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비록 현재로서는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기억하며, 다음 시대에는 “거룩한 길”로 들어갈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35:8

또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한동안 성장하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에 의해 영적인 생명이 질식당하게 내버려 두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삶의 여건이 말씀의 거룩한 영향력을 대신하게 허용하기 전까지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강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사용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자유 의지를 통해, 그분과 그분의 의의 법에 대한 그들의 충실함을 시험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진리가 “좋은 땅”에 떨어지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메시지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인내”로 열매를 맺으며 영적 성장에서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누가복음 8:15) 이들의 성장과 열매 맺음은 그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전념한 자들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매일의 열매 맺는 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도 성취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만 간직하고, 그 안에 담긴 풍성한 유익을 모두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으로 양식을 얻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물을 주려” 노력할 때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권면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진리의 정화하는 능력은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됩니다. (히브리서 10:24). 우리가 함께 “한 번 성도들에게 전해진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울” 때, 새 피조물을 공격하는 다양한 적들로부터 진리를 지키는 방어력은 크게 강화됩니다. 유다서 1:3

“설교의 어리석음”

바울은 “전도의 어리석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21) 이 설교는 강단에서 강연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전념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자신의 입술과 삶에서 말씀이 빛나도록 허락하는 만큼 이 일에 참여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토록 강력한 일이 겉보기에는 그토록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6

하나님께서 왕국을 준비하시는 사역은 이사야 51:16에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심고 땅의 기초를 놓으리니().” 여기서 언급된 “땅의 기초”는 부활하신 옛 선지자들의 지도 아래 있는 그리스도 왕국의 지상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과거 시대에 그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하늘”은 예수님과 그의 교회로 이루어진 왕국의 영적 단계를 상징합니다. 오순절 이후로,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영광의 지위를 위해 준비되어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헌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노라(책의 두루마리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오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려 하노라.” (히브리서 10:7; 시편 40:7). 바로 이 언약에 대한 그분의 신실함으로 인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 되실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준비시키고 거룩하게 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거룩하고 존귀한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구별해 주셨습니다(골로새서 3:1; 히브리서 12:2).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대신하여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고, 이어서 “주의 말씀이 진리니이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요한복음 17:17).

진리의 말씀이 새 하늘을 세우는 이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헌신된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늘에 그 말씀을 새겨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권능으로 그 말씀을 선지자들과 예수님, 사도들에게 주셨으며, 우리는 그들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 서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므로,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며,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으니, 이는 내가 하늘을 심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시온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힘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51:16

우리도 마음에 말씀을 간직해야 하지만, 그곳에 숨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입술에도 드러나야 합니다. 예언적으로 “내가 큰 회중 앞에서 의를 선포하였나이다. 보소서, 주여, 주께서 아시다시피 내가 내 입술을 막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의 의를 내 마음에 감추지 아니하였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큰 회중 앞에서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40:9, 10

하나님께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전달될 수 있으며,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받은 사명에 충실하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비록 우리의 노력이 미약하고 더듬거리는 혀로 말하더라도, 그 말씀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실 것임을 아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이사야 28:11

머지않아 이 시대의 사역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랑의 수고 속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 정확히 무엇을 성취했는지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휘장 너머에서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입술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인 노력에 기여했음을, 또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말한 말들이 그분의 축복을 받아 좁은 길에 있는 다른 이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영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쓰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동일한 말씀은 교회를 모으고 세우기 위해 전해지는 동시에, 세상에 대한 증거의 역할도 해왔습니다(마태복음 24:14). 이러한 방식으로 또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심을 항상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이사야 55:8, 9).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의지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바탕으로, 우리가 점점 더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씁시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넘쳐흐르게 하소서.